

#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 우현서루(友弦書樓)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Woo-Hyun Seoru(友弦書樓) as a Modern Library

조 용 완 (Yong-Wan Cho)\*\*

### 목 차

- |                       |                        |
|-----------------------|------------------------|
| 1. 서론                 | 3. 우현서루의 도서관 성격에 대한 분석 |
| 2. 우현서루를 설립한 이장가(李莊家) | 4.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는 1904년에서 1905년 초 사이 금남 이동진의 의지와 재정지원에 따라 그의 장남인 소남 이일우에 의해 대구에서 설립, 운영되었다가 1911년 일제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사숙이자 도서관인 우현서루(友弦書樓)를 근대 도서관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현서루를 1) 설립 주체와 설립 목적 2) 설립 일자 3) 위치와 건물 4) 장서 구성과 확보 방법 5) 이용대상과 주요 이용객 6) 도서관 활동 7) 폐쇄 과정 8) 폐쇄 후 장서의 이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동진·이일우 부자와 그의 후손과 지인이 쓴 글을 담은 <성남세고>를 비롯해 다양한 DB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도서, 당시의 신문과 잡지기사, 논문, 기록물 등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인용문헌 확장검색을 실시하여 관련문헌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우현서루의 도서관 성격에 관한 8가지 측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현서루의 설립과 폐쇄, 매각 등에 관한 기존의 주장 중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하였고, 우현서루의 장서규모와 장서확보 방안, 우현서루의 이용대상, 우현서루 폐쇄 후 장서 이동과정 등에 대해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 ABSTRACT

As a private school and a library i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Woo-Hyun Seoru(友弦書樓) was established between 1904 - March 1905 by Lee, Dong Jin who had a will and provided a economic support for it and his son Lee, Il Woo had founded and operated it and it seemed to be closed in 1911. By this time, Woo-Hyun Seoru has been underestimated or ignored in the history of libraries in Korea.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8 aspects of Woo-Hyun Seoru as a modern library including the subject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the date of establishment, the location and buildings, the collection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methods, the user group and the important users, the library activities, the process of closure, and the moving path of the collections after the closure of Woo-Hyun Seoru. To do this, the articles of newspaper, periodicals, and academic journals, the relating documents and Sung Nam Se Go(城南世稿) written by Dong Jin Lee, Il Woo Lee and their descendants and colleagues were analyzed.

키워드: 우현서루, 시무학당, 이일우, 이동진, 이장가

Woo-Hyun Seoru, Si-Mu Hakdang, Dong Jin Lee, Il Woo Lee, Lee Jang Ga

\* 이 연구는 2020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년 과제로 수행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yongwan@cu.ac.kr / ISNI 0000 0004 6484 6697)

논문접수일자: 2023년 1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183-211,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8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근대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대체로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라는 봉건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1876년 개항을 기점으로 해서 1919년의 3·1 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종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외세에 의해 국권이 휘둘리게 되었다. 그 사이에 일부 개화파 선각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외국의 선진 문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그 중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제1차 수신사로 참여한 김기수가 1877년 2월에 편찬된 <일동기유(日東記遊)>에서 일본 공공도서관 참관기록을 남겼고, 김홍집 등 제2차 수신사 일행도 1880년 도쿄 도서관을 방문한 바가 있으며, 1881년 4월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의 실정을 파악하고자 파견된 3차 조사시찰단이 고종에게 제출한 <문견사건(聞見事件)> 및 <일본문견사건초(日本聞見事件草)>라는 보고서에서 당시 동경서적관의 도서관 규정을 소개하였고, 1882년 수신사 일원인 박영효의 <사화기략(使和記略)>에도 일행히 도서관 등을 관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유길준은 1895년에 출판된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외국의 근대 도서관을 서적고라는 항목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송승섭, 2022, 50-51).

근대시기의 국내 도서관 사정은 꽤 열악한

수준이었다. 개화파들이 근대 도서관을 소개하고 도입하고자 노력했음에도 19세기 말까지는 근대 도서관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잠식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1901년 10월 10일 부산에 일본홍도회 부산지부 도서실 설치(1903년 부산도서관으로 개칭)를 시작으로 1907년 목포와 강경, 1909년 경성문고 등 자신의 거류지에 일본인들을 위한 도서관과 문고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송승섭, 2019, 224-226). 하지만 국내의 기층 민중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련 연구(송승섭, 2021, 172; 김영석, 이용재, 2018, 133-135; 김경희, 2021)에 따르면, 1907년 5개에서 일제에 의해 전국적 부제(府制)가 실시된 1914년에는 10개관에 불과하였고, 이 중 조선인이 설립한 도서관은 1906년 평양에 설립된 대동서관과 1906년 경성에서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던 대한도서관, 1910년 경성에 설립된 학생서적종람소 등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현서루(友弦書樓)라는 사숙이자 도서관이 1904년에서 1905년 초 사이 대구에 등장하였다. 우현서루는 항일지사 이상정과 민족시인 이상화 등의 조부인 금남 이동진의 의자와 재정 지원에 따라 그의 장남이자 이상화 등의 백부인 소남 이일우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다가 1911년 일제의 강압적 조치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현서루는 우리나라의 근대시기에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 도서관이라는 측면만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뿐만 아니라 1906년경 민간에 의해 설립(또는 설립 추진)된 대동서관과 대한도서관 등에 비해 1-2년 정도 앞서 설립되었기에 조선인에 의

해 설립된 대표적인 근대 도서관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현서루의 도서관 측면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 근대 역사나 대구 지역의 역사 연구, 그리고 소남 이일우의 문학작품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만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왔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04~1905년경 대구에서 설립된 우현서루의 도서관적 성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현서루가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인 근대 도서관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사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현서루에 관련된 당대와 최근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박물관의 <e뮤지엄>,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국가기록원의 <지적아카이브> 등을 통해 당대의 자료들을 검색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국회도서관, 구글 등을 통해 관련 문헌

들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우현서루가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초반에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고위직이나 일본인이 아닌 지방 부호가 설립한, 국공립 시설이 아닌 사숙 겸 민간 도서관이었기에 관련자료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인용된 문헌들을 역추적하는 인용문헌 확장검색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여러 도서, 기사, 학술지 논문, 기록물들이 분석되었고, 그 중에서 경주이장가(慶州李莊家)를 일으키고 우현서루의 설립, 운영에 큰 역할을 한 금남(錦南) 이동진(李東珍, 1836-1905)과 그의 맏아들 소남(小南) 이일우(李一雨, 1870-1936)의 문집인 <성남세고(城南世稿)><sup>1)</sup>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성남세고> 중 <소남유고(小南遺稿)>에는 이일우와 이일우 사후에 그의 지인과 후손이 작성한 글들이 수록되었는데, 여기에 우현서루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현서루 관련 자료의 입수와 내용 확인을 위해 <대륜80년사>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대륜고 교사와 이일우의 후손으로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들과 전화통화, 메일, 방문 등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1) <성남세고(城南世稿)>는 1936-1939년 사이에 유학자 최중환이 서문을, 이일우의 아들인 이상악이 유사(遊事)를, 이상무가 발문(跋文)을 쓰고 이후 편집과 마무리를 거쳐 대구에서 석인본으로 2권 1책으로 출간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목록을 검색한 결과, 서울대 소장본의 출판연도가 1939년(석판본)으로 기술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단국대 소장본의 출판년은 1949년으로 나타났고, 경북대 소장본은 출판연도 표시가 없었다. 성남세고의 권지일(卷之一)은 이동진의 글을 모은 <금남유고(錦南遺稿)>이며, 권지이(卷之二)는 이일우의 글을 모은 <소남유고(小南遺稿)>이며, 각각 사후에 지인과 후손들의 추모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성남세고>를 저본으로 박영호가 역주한 국역본 도서(2016)를 참고하였으며, 그 안에 수록된 <성남세고>의 원문도 참고하였다.

### 1.3 선행연구 분석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근대적 도서관의 개념이 도입되고 근대적 형태의 도서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의 도서관에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석과 이용재(2018)는 국내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일제강점기 부산의 일본 민간단체인 일본홍도회 부산지부 도서관이라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1901년 10월에 설립된 이 도서관은 일본인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목적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 대부분의 장서도 일본 서적이었다는 점, 홍도회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일본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단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홍도회 도서관이 국내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인식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일제강점기 도서관 역사에 관한 저서와 학술논문을 활발히 생산하고 있는 송승섭(2020)은 일제강점기에 1908년 일본인 야마구치 세이(山口 精)가 설립한 경성도서관과 1920년 윤익선 등이 가회동 취운정에 설립한 경성도서관, 1921년 경성도서관을 인수한 이범승이 종로 탑골공원 옆에 세운 경성도서관, 그리고 1926년부터 이 도서관이 일제의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송승섭(2022)은 개화기에 국내 근대 도서관 형성과 관련해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종과 깊은 관계를 맺은 외교 고문관들과 이들과 연계된 인물들과 정부의 외교 사절로 선진문물을 시찰하

면서 외국의 도서관을 경험한 인사들과 유학생들, 당시 조정과 개화파에 영향을 미친 해외 선교 기관과 선교사 등이 우리나라의 근대 도서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살펴보고 국내 근대적 최초의 도서관에 관한 담론을 정리하였다. 조용완과 김종성(2020)은 일제강점기에 관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과 건물의 변천과정을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기존의 대구부립도서관 관련 연구와 도서관계의 역사자료들에서는 당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과 오류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대구부립도서관 조례 제정일, 최초 도서관 건물, 도서관 신축 건물의 착공일, 준공일, 개관일 등이 포함되었다. 조용완(2022)은 국내 도서관 환경이 열악했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일제 관변단체, 항일독립단체, 기타 민간단체, 공립/사립 공공도서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한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 운영주체, 설치시기, 설치목적, 봉사대상과 봉사권역, 운영방식, 장서의 주제와 장서량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국내의 근대적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또는 특정 도서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결된 우현서루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이어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사숙이자 도서관이었던 우현서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재목 외(2009)는 항일 지식인의 교류의 장이자 영남지역 신문화와 신교육의 요람이었던 우현서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

을 지적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대륜 80년사>와 이일우의 조카 이상화 관련 문헌자료와 우현서루가 언급된 신문자료를 토대로 우현서루의 건물, 장서, 인물 등을 통해 우현서루의 실제 모습을 개괄하였다. 박용찬(2014)은 이상화 일가에서 운영하였던 우현서루에 대해 분석하면서 우현서루는 당대의 지식인들과 애국계몽자문들에게 근대지식을 습득, 보급하는 장소로 기능하였고, 지역 출판사인 광문사와 함께 1910년을 전후하여 대구지역의 지적,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학 장(場)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우현서루를 주제로 작성된 논문은 이 2편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우현서루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의 관련 연구를 들자면 이일우에 관련된 연구들로, 박영호(2017)는 이일우의 생애를 정리, 기술한 후 <성남세고>에 수록된 이일우가 지은 한시(漢詩) 38제 46수를 분석하고 그 주제를 탈속의 경지, 애족애민 의식, 봉우 간의 회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인생무상의 감회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김란기(2016)는 1919년과 1935년에 각각 한식과 일식 형태로 대구 중구 서성로에 건축된 이일우의 가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이일우 가옥의 입지조건, 동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일우 가옥이 근대 유산으로서 인문학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숙이자 도서관인 우현서루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단 2편의 연구를 수행하

였을 뿐이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우현서루를 국내 근대 도서관사의 일부로 분석한 바가 없었다. 기존의 우현서루 연구들도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적 자료수집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 논문이거나 우현서루의 장서와 당시의 출판사의 출판물을 연계하여 문학장에서 역할을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이처럼 우현서루의 도서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현서루를 근대 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우현서루의 도서관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사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 2. 우현서루를 설립한 이장가(李莊家)

우현서루는 1904년에 경주이장가(慶州李莊家)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장가를 일으킨 사람은 금남(錦南) 이동진(李東珍, 1836.4.6-1905.3.20)이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힘겨운 유소년기를 보낸 후 낙동강을 통한 어염미두(漁鹽米豆) 유통사업과 경산과 청도지역의 채금(採金)사업으로 자산을 마련하고, 이후 방적, 영농사업 등으로 대구, 경산, 청도 일대에 밭 260두락(마지기)과 논 994두락을 보유할 정도로 거부(巨富)로 성장하였다. 이동진은 자신의 논밭 중 절반으로 이장(李莊)<sup>2)</sup>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생산된 곡식 등을 혼인이나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직업이 없는 가난한 주변 의 종족(宗族)과 인척(姻戚)에게 배풀고 집안

2) 이장은 중국 송나라의 재상 범중엄(范仲淹, 989~1052)이 처음 실시한 의장(義莊 또는 義庄)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의장은 일정 범위의 토지를 마련하고 그 토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친족이나 빈민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중엄은 자신의 고향에 많은 땅을 매입하여 종족이 공유하는 농장을 세우고 일가 중 덕망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대소사에 쓰게 하고(이동진, 이일우, 2016, 7-10, 38-40, 95-98; 제국신문, 1900-01-08), 구빈소(救貧所)와 요병소(療病所)를 설치하여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노력하였다(이동진, 이일우, 2016).

이동진의 장남인 소남(小南) 이일우(李一雨, 1870-1936)는 부친의 자산을 물려받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대구와 경북에서 활약한 거부이면서 계몽교육의 실천, 국채보상운동의 주도, 근대 상공업의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일우는 일찍 세상을 뜬 동생 이시우(李時雨, ?-1907)를 대신해 4명의 조카들을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이후 항일독립지사 이상정 장군, 민족시인 이상화, 사회학자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역임한 이상백, 대한사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이상오 등이다.

그의 일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일우는 1904~1905년 사숙이자 사립도서관인 우현서루(초기에는 사립학교 성격의 시무학당(時務學堂)이라는 명칭을 사용)를 설립하고 시무학당장을 맡았다(황성신문, 1905-02-01; 권대웅, 2021, 31, 69; 소남 이일우기념사업회, 2017, 221-227). 1906년에는 달명의숙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8월 “개발민지(開發民智)와 확장민업(擴張民業)”을 목표로 대구광학회(大邱廣學會) 설립을 주도하고, 그 사무소를 우현서루에 두었다

(윤효정, 1906, 42). 이 단체는 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학교, 도서관, 도서종람회, 신문종람소, 박물관 등 교육관련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일수, 2018, 294-295). 1907년 2월 이일우는 대구광학회를 중심으로 대구민회소 단연회를 설치하였고, 1907년 4월에는 대구시의소(大邱市議所) 설립을 주도하여 대한광학회와 함께 각종 교육사업과 자선사업,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소남 이일우기념사업회, 2017, 321; 권대웅, 2021, 44-46). 1908년 3월에는 대한협회 대구지회 창립에 참여하여 평의원, 국문야학교 설립연구위원, 노동야학회 교사, 실업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이일우는 1910년에 계몽지식인의 모임으로 비밀리에 배일(排日)사상을 고취하였던 달성친목회 사건(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회)에 연루되어 일경에 의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권대웅, 2021, 287-291; 소남 이일우기념사업회, 2017, 325-326). 그는 1906년 농공은행 설립과 1913년 대구은행 설립 등을 주도하고, 그 외 전기, 운수, 섬유, 탄광, 출판 등 대구의 근대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이상규, 2021, 66-75).

이일우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 운영한 우현서루(시무학당)는 달성친목회 사건의 여파로 1911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고 그 이후부터 이일우는 우현서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강의원(講義院)<sup>3)</sup>을 운영하였다고 전해

삼아 거기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모아 일가 중 형편이 어려워 혼인, 장례 등을 치르지 못하는 이들을 돕게 하겠다고 전한다(문화재청 홈페이지 [발행년불명]. 출처: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3260&bbsId=BBSMSTR\\_1008&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1\\_09\\_01](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3260&bbsId=BBSMSTR_1008&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1_09_01)). 이장은 이동진이 범중엄의 의장을 함모하여 만들었지만 실제 자신에게는 범중엄과 같은 의리는 없으므로 의(義) 대신에 자신의 성인 이(李)를 붙여 이장(李庄) 또는 이씨장(李氏庄)으로 부르게 하였다(이동진, 이일우, 2016, 7-10, 38-40).

3) 박창암은 강의원을 “민족 기본교양, 시사해설, 단연(斷煙)운동, 일본상품 불매운동, 스포츠 장려, 기타 여론지도

진다(상백이상백평전 출판위원회, 1996, 49-50; 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105;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회, 2017, 73). 하지만 1915년 동경 유학생과의 야구시합에서 일본인 심판의 편파적 판정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후 일본측의 보복으로 강의원도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그 후 1921년 9월 21일에는 구 우현서루를 중수(重修)한 후 가교사로 사용하여 교남학원이 개교하게 되었다(조선일보, 1921-09-05; 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103-104).

한편,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일우의 활동 중 친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는 이일우와 이장가 기념사업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의 근대 역사 기념사업들 중 일부가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일우의 경우, 뚜렷한 독립운동의 증거 없이 친일단체에 가담한 기록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였다.<sup>5)</sup> 이에 대해 이일우기념사업회 등은 이일우는 애국지사이며 계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으며, 친일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 반박하였다. 이상규(소남 이일우 기념사업회, 60-67)는 이일우의 일부 행위는 당시 대구의 토호세력이었던 서상돈, 이병학 등의 극친일적 행각에 비하

면 매우 미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총독부의 중의원 추천을 거부하고, 서상일, 안희제 등 대동청년단 인사들과 연계하여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달성친목회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으므로 그를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항일 민족지사이자 시인인 백기만(1957, 42)은 친구 이상화의 백부인 이일우에 대해 사회에서 명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작인들에게도 후대하여 작인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하였고, 평생 지조를 지켜 관선 도의원과 중추원 참의<sup>6)</sup>를 거절하고 “배일(排日)의 거벽(巨擘)”이 되었다고 추앙하기도 하였다.

### 3. 우현서루의 도서관 성격에 대한 분석

#### 3.1 설립 주체와 설립 목적

당시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우현서루의 설립은 이장가를 세운 이동진의 의지와 사재출연 결정이라는 바탕 위에 그의 아들 이일우가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집회소 기능, 민족의식의 포괄적 합법운동 등으로서 사실상 대구지역의 반일애국운동 본산역을 자임했으나 역시 일제 탄압으로 폐쇄당했다.”고 기술하였다(상백이상백평전 출판위원회, 1996, 50).

4) (2919) 제70화 야구에 살다(18)평양의 “열전”. (1980-09-16). 중앙일보; [스토리가 있는 대구 도심] (18)서성로 스토리 ① 우현서루와 교남학원. (2009-11-05). 매일신문.  
5) 공개한 기록에는 조선총독부 관보(1914.4.11)에 지방행정 부군참사(총독부 인가 지자체 정책보좌관)로 임명된 문서, 3.1만세운동 근절단체인 ‘대구자제단’ 발기인 67인에 포함된 자료, 총독부 주도의 관변단체 ‘신궁봉찬회’ 경북도 지부위원 위촉장, 일제강점기 신사(神社)를 대구 지역으로 확대하는 ‘대구신사조영봉사회’ 조선인측 기부 문서, 일본 헌병의 감사인사 엽서 등이 포함되었다. 대구 ‘이일우 선양사업’ 논란..민문연 “친일 행적 발견”. (2017-07-17). 프레시안.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3402?no=163402&ref=daumnews>  
6) 중추원은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 및 동 중추원 관제에 의해 설립된 총독자문기관이며, 중추원 참의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으로 친일 유지나 친일 귀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3945>

이일우와 오랜 지인인 최종한은 <성남세고>에 수록한 제문(祭文)에서 “칠백 마지기의 전답(이장을 의미)을 선고(이동진)께서 의롭게 내었으며 만권의 서루 또한 선고의 뜻이었도다. 그렇게 계승하여 잘 발전시켰으니 공이 아니면 누가 했겠는가?”라고 기술하였다(이동진, 이일우, 2016, 202-203). 또한 이일우의 조카 이상정(1896-1947)도 백부인 이일우의 별세 소식을 듣고 당시 체류하던 중국에서 보낸 제문에서 우현서루의 설립은 원래 조부 이동진이 가진 만년의 유지였으나 백부 이일우가 그 뜻을 계승하여 부족한 재력에도 10여년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sup>7)</sup>

우현서루는 당시 대한제국과 전통적 기반이 약화되고 서양의 문물과 사상이 지배권을 형성해가던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에 전통만을 고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대의 방향성을 고민하던 지식인과 지사들에게 동서양의 신구 서적에 기초한 독서와 강론, 토론, 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시대적 난관을 타개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설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은 <성남세고>에 잘 나타나 있다. 이일우의 아들 이상약은 유사(遺事)에서 “(이일우는) 갑진년(1904) 서울을 유람하였다. 세상의 수준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고, 선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옛날 것에만 고수할 수 없으며, 또한 열국이 동쪽으로 점점 세력을 뻗어오는 형세 속에서 지식으로 경쟁하려면 영재를 교육하는 것이 첫째의 일이라 여겼다. 돌아와서 집안에 아뢰니 선친(이동진을 의미)께서 기뻐하면서 장려하고 허

락하였다.”고 기술하였다(이동진, 이일우, 2016, 241). 그리고 박승조는 행장(行狀)에서 “갑진년에는 서울을 유람하였다. 세도가 변하고 풍조가 사라져서 서구문명이 동양으로 옮기는 정세를 통찰하고는 선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옛 전통에만 얽매어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돌아와서 선공(이동진)께 아뢰고는 바로 넓은 집 하나를 지어서 영재를 교육할 계획을 세우고 현판을 ‘우현’이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이동진, 이일우, 2016, 209). 이러한 취지로 설립된 우현서루에는 당시 영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우국지사들이 방문, 이용하게 되었고, 기숙을 하면서 서적을 탐독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시대와 사조를 접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였다(박지현, 2016, 5-10).

우현서루의 설립목적은 그 명칭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현서루의 명칭은 옛날 중국의 정(鄭)나라 상인 현고(弦高)가 길을 가던 중에 정나라를 기습하는 진(秦)나라 군사들을 발견하고 위기감을 느껴 소 12마리를 보내 군사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벌이는 한편, 정나라에 기별을 보내어 미리 대비하게 하여 결국 진나라 군사들이 물러나서 정나라를 구했다는 ‘현고호사’(弦高犒師)에서 비롯되었다(이동진, 이일우, 2016, 241; 이상규, 2021, 68). 따라서 나라를 구한 현고를 벗으로 삼는다는 우현(友弦)을 명칭에 사용한 것은 외세가 득세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우현서루를 통해 현고와 같은 인재들을 길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7) 관련 내용은 “書樓之設本自祖考晚年遺志 府君克繼先志財力不逮耿耿營之十餘春秋”이다. 이 제문은 1936년 8월 15일에 작성되었으며, 현재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다.

### 3.2 설립 일자

우현서루의 설립일자는 아직까지 자료부족으로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있다. <소남유고> 중 <소남유고>에 수록된 이일우의 자녀와 지인, 학인들의 글들은 대부분 1904년에 이일우가 서울을 돌아본 후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부친에게 허락과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바로 넓은 집을 건축하고 이를 우현서루로 명명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어 1904년 이후로 설립된 것은 확실해보이지만 모두 구체적인 설립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부에서는 1904년 설립을, 일부에서는 1905년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1904년 설립을 주장하는 자료들은 <소남유고>에 나온 글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일우의 조카로, 사회학자였던 이상백 관련 연구에서 김필동(1994)은 이일우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904년에 우현서루라는 의숙을 설립하였다고 밝혔고, 이상백 평전에서 박창암(상백 이상백평전, 1996, 37)은 1904년 서울 유람 후 구국방략(救國方略)의 일환으로 우현서루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권대웅(2021, 31-38)은 우현서루가 1904년에 설립되었고, 시무학당은 1905년 우현서루에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서 중 <경북 신교육기관 일람표>에서 시무학당의 설립은 1905년 1월이며, 그 근거로 황성신문 기사(1905-02-01, 03-04)를 제시하였다. 백승중(소남 이일우기념사업회, 2017, 221-227)은 1904년 이동진 일가가 ‘을사늑약’의 수치를 겪고 일본의 반(半) 식민지로 전락하자 사재로 육영사

업을 벌여 국운을 바로잡기 위해 우현서루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상규(2021, 67)도 1904년에 우현서루가 개설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우현서루가 1905년에 설립된 것으로 주장하는 자료들 중 우현서루를 가교사로 설립된 교남학원의 후신인 대륜고의 역사를 다룬 <대현80년사>(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104-105)는 1905년 일제의 을사조약에 통분을 느낀 이동진이 사재를 출연하여 장자인 이일우가 운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재목 외(2009)도 “을사보호조약을 애통해 한 금남 이동진이 사재를 창설하고 그의 장남인 이일우가 운영하였다.”고 기술하며 우현서루가 1905년에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박용찬(2014a, 402; 2014b, 466)도 1905년 이일우에 의해 설립되어 1911년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련 자료와 당시 신문기사들을 종합한 결과, 우현서루는 1904~1905년 3월경 사이에 설립준비와 설립허가를 마치고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시무학당과 우현서루의 명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현서루와 관련된 최초의 신문기사들(황성신문, 1905-02-01; 1905-03-04; 1905-03-24)에서는 우현서루가 아닌 시무학당의 설립 준비과정(자료준비, 운영방법 등)과 학당(학교) 개설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1906년 이후부터는 시무학당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우현서루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였다.<sup>8)</sup> 이에 대해 백승중은 교육기관 성격을 강조한 시무학당은 도서관 성격을 강조한 우현서루의 전신(前身)이라고 판단하였다(소남 이일우기념사업회,

8)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들 중 우현서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최초의 자료는 1906년 10월 25일에 발행된 <대한자강

2017, 221-227). 권대웅(1994, 42; 2021, 31-38)도 경북 최초로 민족의식 고취와 신지식 계발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신교육구국운동의 움직임이 나타난 곳이 이일우가 1905년에 설립한 시무학당이며, 그 후 우현서루로 간판을 내걸었다고 주장하면서, 우현서루는 도서관이고, 시무학당은 학교로, 둘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는 도서관을 갖춘 학교였으며, 시무학당은 우현서루의 서적과 신문, 잡지를 활용해 열람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고 언급하였다(권대웅, 2021, 38). 이들의 연구와 성남세고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도 시무학당은 우현서루의 전신 또는 동일체이며, 명칭은 1905년에는 시무학당으로, 1906년부터는 우현서루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전제 하에 당시 신문기사들<sup>9)</sup>을 보면, 1904~1905년 1월 이전까지 시무학당을 설립하고(時務學堂을 設立하여) 학당장 초빙과 자료구입, 인원모집, 운영 등에 대해 계획하고 대한제국 학부(學部)에 허가 요청을 준비하였고, 1905년 2월경까지는 이일우가 학당장에 취임하고 학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등 시무학

당은 내부적으로 설립을 마치고 허가를 기다리는 상태로 파악된다. 1905년 3월 24일 기사는 당시 국내 여러 곳에서 학교설립과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그 예로 기독교 청년회의 교육활동과 (한성)법학교, 보성전문학교, 양정의숙, 육영학교(강화)와 함께 이일우가 대구에 시무학당을 설립했음(設時務學堂於大邱)을 보도하였는데, 이로써 1905년 3월경에 시무학당(우현서루)의 설립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사들과 성남세고 등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시무학당, 즉 우현서루는 이일우가 서울 방문을 마치고 온 1904년~1905년 2월까지 사숙이자 도서관 용도의 건물을 짓고 자료를 구입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1905년 3월경에 정식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앞의 관련 자료들 중 일부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 자료들은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1904년 또는 1905년에 우현서루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을사조약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905년 11월 17일에 강제로 체결한 조약<sup>10)</sup>이므로, 우현서루가

회월보 제4호)인데, 여기에는 1906년 8월 25일에 이일우가 설립한 우현서루를 방문하였고 8월 28일 오후1시에 연설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윤효정, 1906, 42-43). 그 이후 1908년 해조신문(1908-03-07; 1908-04-22)에 우현서루라는 이름이 등장하였고, 1909~1910년 신문기사(주로 신문사 배급처 광고)와 1921년 9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교남학원의 가교사로 구 우현서루를 사용)까지 계속 우현서루로 유지되었다.

9) 大邱居 李一雨氏가 民智開發에 留意하여 資金을 自辦하고 達城內에 時務學堂을 設立하여 學問淵博한 人으로 學堂長을 延聘하고 內外國新舊書籍의 智識發達에 有益한 書冊과 各種 新聞 雜誌 等を 廣求購入하여 該學堂에 貯藏하고 上中下三等社會中에 聰俊有志한 人員을 募集하여 書籍과 新聞 雜誌를 逐日閱覽討論할 計劃으로 學部에 請願하여 認許를 要한다니 如此有志한 人은 政府에서도 獎勵할만 하다더라(황성신문, 1905-02-01). 大邱郡私立時務學堂長 李一雨氏가 學部에 請願하였는데 本學堂은 一般 大韓國民의 智識을 開發增進하기 爲하여 內外國新舊書籍中 時務智見上有益者를 購買貯蓄하여 以便攷究講習이되 學堂은 名以時務學事...(후략)(황성신문, 1905-03-04) ... (생략)... 如基督教之青年會는 久已大興教育하고 李容復 尹德榮 諸氏는 設法學校하고 李容翊 申海永 諸氏는 設養成專門學校하고 嚴柱益 金孝益 諸氏는 設養正義塾하고 李東暉氏는 設育英學校於江華하고 李一雨氏는 設時務學堂於大邱하고 其他 一塾一堂之設立者는 指難枚述이오 ... (후략)... (황성신문, 1905-03-24) (밑줄은 연구자의 표시임)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2958>

을사조약 이후에 설립되었다면 아무리 빨라도 1905년 12월경이고, 일반적이라면 1906년에 설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일우의 부친 이동진이 을사조약 체결보다 약 7-8개월 전인 1905년 3월 20일에 사망하였기에(이동진, 이일우, 2016, 107; 상백이상백평전출판위원회, 1996, 32) 이동진 또는 이동진 일가가 을사조약에 분노하여 우현서루를 설립(또는 사재 출연) 또는 설립 승낙을 했다는 주장은 오류로 판단된다.<sup>11)</sup>

### 3.3 위치와 건물

우현서루는 당시 대구부 팔운정(八雲町) 101번지에 위치하였는데, 현재의 대구 서성로와 북성로가 교차되는 대구시 중구 수창동 101-11번지에 해당하며, 부지는 약 700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103-104; 매일신문, 1969-05-18; 영남일보, 2016-11-23).<sup>12)</sup> 우현서루가 사숙이자 도서관으로 기능하였고, 우현서루의 장서를 이용하기 위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며칠씩

기숙하였기 때문에, 우현서루는 여러 동의 건축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2020년 한 언론보도에서는 이일우의 고택에 소장 중 도난되었다가 다시 회수한 자료들에 포함된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에서 우현서루가 기와지붕이 아닌 양철지붕 목조 건축물 4동(木造鋸家四棟)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sup>13)14)</sup>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를 통해 1911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대구부 대구면 시가지의 지적원도를 찾아 우현서루가 위치한 팔운정 101번지를 확인한 후 1917년에 발행된 대구지도 초판(대구근대역사관 소장)에서 동일한 위치를 살펴본 결과, 1917년 당시 해당 부지에는 4개 동의 건축물 외에 매우 작은 건축물(오두막으로 일꾼 집 추정)이 있고, 그 사이에 비교적 넓은 마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현서루의 공간구성을 추정한 2개의 평면도(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이중희, 2019, 25)를 보면, 우현서루 부지 내 북서쪽에 본관(학습용으로 추정되는 큰 방과 안쪽 작은 방 2개), 본관의 오른쪽이자 부지 내 북동쪽에 별채(평면도에 명칭은 없음, 손님 숙소로 추정

11) <성남세고>에 의하면, 이일우는 이동진 사후에 복현암(伏賢巖)의 선영에서 부친의 삼년상을 치렀는데, 복현암은 현재의 대구 북구 복현동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시무학당(우현서루)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일우는 이동진 사후인 1905년 3월 20일부터 최소 2년은 관련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년상을 치를 경우, 장례 이후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탈상 때까지 생활하는데, 만 24개월이 지나면 탈상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s://folkency.nfm.go.kr/main>

12) 현재 이 부지에는 대구은행 서성로 지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 건물 외벽과 내부에 우현서루가 위치한 곳으로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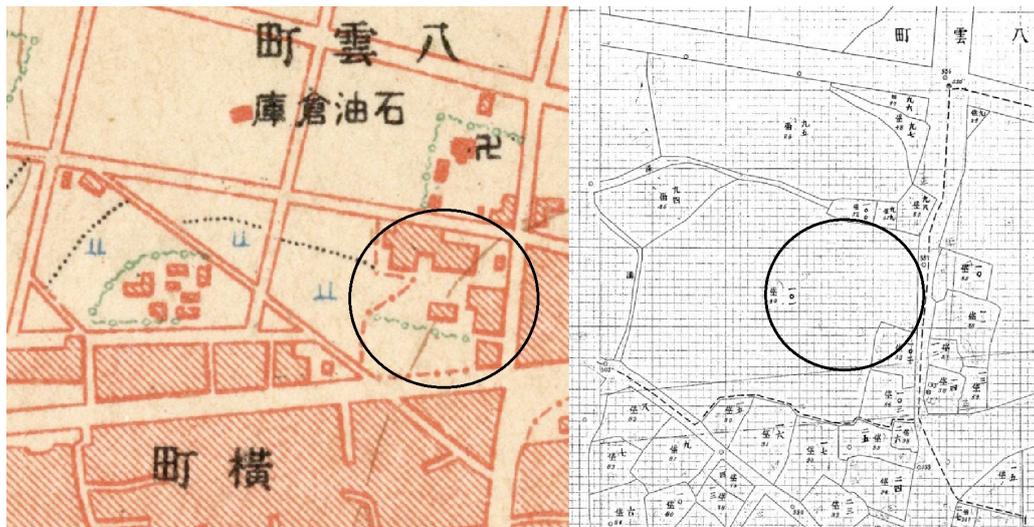
13) 미공개 이상화 편지 등 유품 무더기 공개, (2020-11-13), 대구 MBC 뉴스, 출처: <https://dgmbc.com/article/mFu8xVOWKAbN->

14) <대륜 80년사>에 수록된 이일우의 손자 이합희의 고증을 바탕으로 그려진 우현서루의 복원 그림에서도 낮은 기와담장이 부지를 둘러싼 상태에서 마당을 두고 크고 작은 여러 채가 들어선 모습을 하고 있다(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하지만 이합희(1928-2005)의 출생연도와 <대륜 80년사>가 발행된 시점(2001년)을 고려하면, 해당 복원 그림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것이 기와지붕이다. 최재목 외(2009, 221-220)도 서고가 일제의 근대 막사와 같이 일자형 건물처럼 생겼는데, 복원 그림은 기와를 얹은 한옥 건물로 그려져 기억의 오류라고 언급하였고, 이상규(2021, 69)는 고증의 잘못으로 우현서루 복원 그림에 기와집이 그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되는 작은 방 2개과 뒷마루)와 별채의 오른쪽에 작은 오두막(일꾼용), 오두막 아래에 서고(직사각형 구조, 숙직실이 작게 딸림) 등이 있고, 그 외에 이장가 소유의 생사 작업공간(서루 외부에 뽕밭이 있음)과 민가(3채) 등이 위치하였다. <대륜 80년사>에서 서고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긴 서쪽이 약 20m로 기술되어 있으나 짧은 남쪽은 길이가 기술되지 않았으며, 이 서고를 촬영한 흑백사진 속 서고 건물은 목재의 단층 건물로 건립되었고, 긴 서쪽 면을 따라 주 출입구와 여러 개의 창들이 설치되었다(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최재목 외, 2009, 220-221).<sup>15)</sup>

### 3.4 장서 구성과 확보 방법

우현서루의 장서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시 신문 기사나 관련 단체의 소식지, 우현서루를 직접 이용했던 인물들의 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1906년 4월 설립된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간부가 1906년 8월 25일 당시 긴밀한 관계에 있던 대구광학회(大邱廣學會) 사무실, 즉 우현서루를 방문한 후 남긴 글에 장서 규모가 처음으로 나타났다(윤효정, 1906, 42).<sup>16)</sup> 우현서루(시무학당) 설립 1년 반~2년 정도 경



<그림 1> 당시 지도에 나타난 우현서루의 위치와 건물

좌: 1917년에 발행된 대구지도 초판(출처: 대구근대역사관)

우: 1911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대구부 대구면 시가지의 지적원도(출처: 국가기록원)

- 15) 이 평면도와 사진들을 <그림 1> 대구지도 초판 상의 건물배치와 비교하면, 일부 차이를 보인다. 대구지도 초판에서 서고는 평면도와 사진과 달리 직사각형에서 일부가 조금 빠져나온 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본관과 별채가 인접한 두 공간이기보다 한 공간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16) 서울의 광학사가 대한자강회와 표리를 이루는 연락기관으로 설립되었기에, 광학사의 지회인 대구광학회도 대한자강회의 지회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권대웅, 1994, 21-27).

과한 시점에 방문한 해당 간부는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곳이 우현서루였으며, 동쪽(東邊)에 동서(東西)의 서적 수백 종을 소장한 서고를 두고 지사(志士)의 도서실 이용과 종람(縱覽)을 허용하여 신구(新舊) 학문을 손쉽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다시 2년 정도 이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행된 동포신문인 <해조신문><sup>17)</sup>에 우현서루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여기에는 “내외국에 각종 신학문서적과 도화를 수만여종이 구입하여 적치하고”(해조신문, 1908-04-22) 등과 같이 보도하여 앞의 수백 종과는 상당한 장서량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일우 사후에 발간된 <성남세고> 내 여러 글에서 우현서루의 장서 규모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는데, 각 글에서 장서량은 천 질의 책, 수천 종의 서적, 천 상자의 책, 만권의 서적 등 1천~1만 권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 중 당시 우현서루를 방문 또는 이용한 인물과 그들과 소통한 이들의 언급들을 위주로 정리하면, 우현서루의 장서는 설립 초기에 수백 권 규모에서 시작해 그 후 수천 ~ 1만권 정도까지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 당시 신문기사의 ‘수만 종’ 표현은 다른 자료들을 살펴볼 때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우현서루의 장서 구성은 우현서루의 설립 목적

과 일맥상통한다. 우현서루의 장서는 <표 1>과 같이 서세동점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계몽교육을 통한 민지개발, 동서양 및 신구 지식의 조화, 시무지견, 즉,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등을 목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남세고>에도 나타나는데, 이일우의 아들 이상약의 유사에는 “구학을 바탕으로 삼고 신지식으로 빛나게 해서”라고 표현되었고, 박승조는 행장에서 “옛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 새로운 지식으로 윤색”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우현서루의 장서 구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황성신문(1905-03-04) 기사가 유일하는데, 이 기사는 당시 시무학당(우현서루)의 장서구성에 대해 우현서루 측의 입장을 그대로 나열한 것처럼 작성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우현서루는 일반 대한국민의 지식을 개발증진하기 위해 내외국 신구 서적 중 시무지견(時務智見) 상 유익한 자료들을 수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한 및 동서 각국(大韓及東西各邦)의 고금역사(古今歷史), 지지(地誌), 산술학(算術學), 격치(格致), 화학(化學), 경제(經濟), 물리(物理), 농상공법률학(農商工法律學), 의학(醫學), 병학(兵學) 등의 주제의 도서와 그 외 신문과 잡지 등을 입수 대상으로 정하고, 학문과 시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타 잡술(雜術), 소기(小技), 준심(蠹心), 병속(病俗) 관련 서책은 소장을 금지한다고 보도하였다.

17)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에서 생활터전을 찾거나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동포들이 다수 이주한 대표적인 곳이 만주와 연해주인데, 해조신문은 러시아 거주 한인이 만든 최초의 신문으로, 1908년 2월 26일부터 같은 해 5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75호까지 발행된 후 일제의 회유와 간섭, 러시아측의 압력, 한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폐간되었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발행일불명], 출처: <https://db.history.go.kr>). 당시 이 신문의 주필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황성신문 1905-11-20)으로 유명한 장지연(張志淵)인데, 1905년 이일우의 부친 이동진 사망 당시 이일우와 위로 편지와 답장을 건넨 것을 보아 1905년 이전부터 교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 번호 수증 23283, 수증 23287,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서 검색). 참고로 장지연이 친일 경향의 글을 쓴 기간은 1914년 12월 23일 ~ 1918년 7월 11일까지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일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803>).

〈표 1〉 관련 자료에 기술된 우현서루의 장서량과 장서 구성에 관한 언급과 그 출처

장서 규모	장서 구성	출처 / 발간연도	
-	내외국 신구서적의 지식발달에 유익한 서책과 각종 신문, 잡지	황성신문	1905(02-01)
-	- 내외국 신구 서적 중 시무지견(時務智見) 상 유익한 것 - 대한 및 동서 각 나라의 고금역사(古今歷史), 지지(地誌), 산술학(算術學), 격치(格致), 화학(化學), 경제(經濟), 물리(物理), 농상공법률학(農商工法律學), 의학(醫學), 병학(兵學), 신문과 잡지 등 - 기타 잡술(雜術), 소기(小技), 준심(蠡心), 병속(病俗) 관련 서책은 소장 금지(切勿貯藏)	황성신문	1905(03-04)
수백여 종	동서양의 책	대한자강회월보	1906
-	각종 서적과 청국의 신학문책	해조신문	1908(03-07)
수만여 종	내외국의 신학문 서적과 도화	해조신문	1908(04-22)
천 절의 책	-	성남세고(제문, 김상목)	1936-1939
-	해외로 연락하여 새로운 서적	성남세고(제문, 박연조)	1936-1939
만권의 책	-	성남세고(만사, 박연조)	1936-1939
천 상자의 책	-	성남세고(제문, 이수기, 김광진)	1936-1939
수천 종	동서양의 신구 서적	성남세고(행장, 박승조)	1936-1939
서적 1만권	해외의 여러 책을 섞어서 구입	성남세고(묘갈명, 송준필)	1936-1939
수천 종	동서양 고금의 서적	성남세고(유사, 이상악)	1936-1939
1만수천권	중국 등지에서 1만 수천 권의 서적	매일신문	1969(05-18)
수천 권	-	성외문집 <sup>18)</sup>	1970
수천 종	동서고금의 서적	상백이상백평전	1996
1만여 권	중국에서 들여온 신지식/신문물 소개한 도서	최재목 외	2009
수천 권	-	월간조선(이상화 차남)	2015. 8
-	칭말 중국에서 번역된 다양한 계몽 서적들	박지현 박사논문	2016

우현서루의 장서구입 비용은 이일우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현서루(시무학당) 설립 시기에 황성신문 기사에는 이일우가 민지개발(民智開發)을 위해 자금을 스스로 부담(自辦)하여 달성 내에 시무학당을 설립하였다고 보도하였고(1905-02-01), 서적 구매비와 학당 건축비는 이일우 본인이 부담하되, 기타 일체의 비용은 학원(學員)과 상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보도하였다(1905-03-04). 이후 신문기사(해조신

문, 1908-04-22)에서는 이일우가 자본금을 부담해 우현서루를 짓고 서생들의 숙식 경비까지 부담한다고 보도하여 실제 장서구입과 그 외의 모든 경비는 당시 재력이 풍부했던 이일우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우현서루는 어떤 방법으로 장서를 확보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우현서루의 장서는 과거의 전통과 외부에서 이식된 혁신 간의 공존과 접목을 추구하

18) 성외문집(省窩文集)은 일제강점기에 <철학교변>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철학자 이인재(李寅棹, 1870-1929)의 글을 모아 간행한 문집으로 1970년에 간행되었다(한국학종합DB [발행일불명]. 출처: <http://db.mkstudy.com/ko-kr/mksdb/e/korean-anthology/book/1163>). 이인재는 <성외문집> 내 우현서루의 주요 인물인 김광진에게 보낸 “답김광진(答金光鎭)”에서 우현서루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문집은 1970년에 간행되었으나 해당 글은 우현서루의 운영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는 정신에 따라 동서와 고급의 서적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해외, 특히 당시 청나라에서 수입된 자료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현서루의 장서 입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당시 근대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되던 대구에도 서포(書舖)와 출판사 등 도서유통 인프라가 존재하였고, 이것이 우현서루의 주요 장서 공급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김봉희(1999, 29-94)는 혼란스러운 개화기 상황에서 교육받은 인재와 국민들이 가장 적극적인 자강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선각자들은 국민교육을 위한 근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교과서 등 각종 신서적의 출판과 유통으로 연결되었으며 특히, 서포가 발전하면서 서적 유통이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에 따르면, 1906년 이후부터 지방에서도 서적 판매를 전담하는 서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당시 신문 등에서 확인한 전국의 서포들 중 대구에서는 1906년 이전에 생긴 김기홍 서포와 1908년 석실서관 등이 존재하였다. 당시 대구 지역의 출판사와 관련해 박용찬(2014a, 413-416)은 1910년 전후 대구에는 광문사(廣文社)와 재전당서포(在田堂書舖), 칠성당서포(七星堂書舖) 등이 존재하였는데, 광문사는 신식교육에 바탕을 둔 계몽서적과 교과서용 도서 등을 주로 발간한 것에 비해 다른 두 서포는 주로 전통 유학서나 실용서적 등을 위주로 출판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봉희의 연구(1999, 41-53)에서도 개화기 대구에는 1906년에 설립된 광문사와 일본인이 설립한 대구인쇄합자회사 등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현서루의 장서들 중 일부는 당시 대구에 소재한 출판사와 서적 유통을 위한 서포 등에서 입수된 자료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이일우가 직접 서포를 운영하여 우현서루의 장서 입수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일우의 조카 이상오의 아들인 이광희는 이일우가 우현서루 폐쇄 후 서기(書記)를 두고 서점을 경영하였다고 전하였다(소남 이일우 기념사업회, 2017, 165). 또한 1969년에 발매된 <주간조선> 기사에서도 이일우가 우현서루 폐쇄 직후에 우현서루의 수많은 장서를 일반에 공개하여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대구 서성로 약전거리에 서점을 차렸다고 언급하였다.<sup>19)</sup> 이상규(2021, 69)는 이일우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서책들을 팔기 위한 서포를 대구 약령시 부근에서 잠시 운영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시기와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주장들은 관련 자료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만일 우현서루 운영기간에 이일우가 서포를 운영했다면 그가 직접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자료의 선정과 입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5 이용대상과 주요 이용객

우현서루의 이용대상과 관련해 크게 일반 시민이라는 관점과 지식인(영재, 인재, 선비 등으로도 표현)과 우국지사라는 관점이 존재하였다. 주요 이용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

19) 소문난 명문... 대구의 이장가. (1969-08-24). 주간조선.

유는 이것이 근대 도서관으로서의 우현서루가 공공도서관 성격인지, 학교도서관 성격인지, 아니면 연구 또는 학술도서관의 성격인지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현서루가 일반 시민을 위한 도서관(학당)의 성격이라는 관점은 당시의 일부 신문에 나타나 있다. 황성신문 기사(1905-03-04)에 소개된 시무학당에 대한 이일우의 학부(學部) 청원 내용을 보면, 시무학당(우현서루)은 “일반 대한국민의 지식을 개발증진하기 위하야”라거나 “入堂閱書는 勿論 遠近 上中下 等 會社 與 老少 同고 并從 志願 同하야 課日 閱覽 同하야 或 討論도 同하야”<sup>20)</sup>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또 다른 황성신문 기사(1905-02-01)의 “上中下 三等 社會 中에 聰俊 有志 同하야 人員을 募集 하야” 등의 표현을 통해 당시 전국의 누구나 시무학당(우현서루)에 지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주의 동포신문 <해조신문>에서도 “학문을 넓히 미치게하고 일반 동포의 지식을 개발코자하여 ...(중략)... 일반인민으로 하여금 요금 없이 서적을 열람케한다하니”라고 보도하였고(1908-03-07), “유지신사 이일우씨는 일반 동포를 개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자당하여 해지에 우현서루라 하는 집을 건축하고 ...(중략)... 경상 일도 내에 중등학생 이상에 자격 되는 총준(聰俊) 자제를 모집하여”라고 보도하였다(1908-04-22). 이러한 기사들의 내용처럼 우현서루가 운영되었다면, 우현서루는 지역주민을 넘어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사립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경상도 내 중등학생 이상의 자격이 있는 총명하고 준수한 자제라는 표현에서 우현서루가 학교도서관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현서루를 지식인과 인재, 우국지사 등을 이용대상으로 한다는 관점은 우현서루를 직접 방문, 이용하였던 인물들이나 이장가의 후손들에게서 자주 표현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봉사하였다면 우현서루는 개화기 지식인들을 위한 인적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박지현, 2016, 5-10). 이와 관련해 앞에서 언급한 대한자강회 간부는 “도서실자격으로 지사(志士)의 종람(縱覽)을 허(許)하야 신구학문을 수의연구(隨意研究)케호 처(處)이라.”라고 기록하여 우현서루가 일반시민보다는 유지나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윤효정, 1906, 42-43). 조카 이상정이 백부 이일우를 위해 작성한 제문에도 우현서루를 10여년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난한 선비들을 학자로 배출하였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소남유고>에 글이 수록된 지인, 학인, 후손들은 하나같이 우현서루에는 인재, 선비, 지사 등이 이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수많은 선비들이 저 사방에서 찾아왔으니”(제문, 학계대표 이수기, 김광진), “현인을 찾고 선비를 길렀으며”(제문, 김상묵), “현루를 창설하였으며 많은 선비들을 초대하니 사방에서 다투어 찾아왔도다”(제문, 박연조), “경상남북도에서 통달하고 총명한 인재들을 초치하여 일년에 수십명씩 양성하였다.”(유사 이상악), “총명하고

20) 이 부분은 학당에서의 도서열람은 시무학당(우현서루)에서 멀든 가깝든, 상중하 어떤 계급에 있든, 회사를 다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무관하게 모두 지원해서 매일 할 수 있으며, 간혹 토론도 할 계획이라고 의역할 수 있다.

준수한 인재를 살펴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 (중략)... 멀고 가까운 데에서 뜻이 있는 선비로서 소문을 듣고 흥기한 자가 날마다 운집하여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었으니”(행장, 박승조), “선비를 기르려 현루에 장막을 설치하였네”(만사 유지녕), “우현루를 건축하여 총명하고 뛰어난 재자(才子)들을 모아 밖으로는 벗들이 서로 도와 학문과 성품을 닦았으며”(제각 상량문 장시원), “지혜롭고 준수한 선비들을 널리 맞이하였다”(발문 조용연)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우현서루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기보다 당시 대구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학력수준이나 유학 공부를 경험한 인재와 지사 등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현서루를 직접 방문, 이용, 경험하였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우현서루의 이용대상은 지식인 계층이라 언급하였으므로, 이는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 만일 이러하였다면, 우현서루는 <대륜 80년사>(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105)가 표현한 것처럼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의기를 기르던 지사양성소이자 항일 투쟁과 신교육 신문화 운동의 온상지였으며, 근대화 성취의 노력을 다한 요람지로 볼 수 있다. 박지현(2016, 56-58)도 김광진 등 우현서루를 이용한 지식인들은 완고한 유림들에게 신학문의 수용을 권고할 만큼 신념에 차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우현서루의 주 이용층은 유림들과 학문적, 사상적 논쟁을 할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들은 앞의 우현서루가 보유한 동서고금의 신구서적을 읽고 강연하고 토론할 수준에 도달한 지식인임을 알

수 있다. 주 이용대상을 통해 우현서루를 특정 도서관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우현서루는 지역과 전국의 주민들에게 개방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시무학당으로 시작하여 중등학생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학교도서관의 성격도 일부 존재하지만 동양과 서양의 신구 학문에 능통한 지사, 선비, 엘리트들을 위한 연구도서관 또는 학술도서관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개화기에 동서양의 신구 도서를 수천 권에서 1만 권 규모로 소장했던 우현서루는 대구와 영남을 넘어 전국에도 명성이 자자했을 것이며 따라서 영남지역의 인재들과 전국의 우국지사들도 방문하였다는 주장도 여러 곳에서 등장하였다. 박창암(상백이상백평전 출판위원회, 1996, 48-49)은 우현서루가 20여명의 기숙생 외에 팔도에서 운집하는 열사와 지사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는데, 여기에는 상해 임정의 대통령 박은식(朴殷植), 초대 국무령 이동휘(李東輝),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張志淵), 장지필(張志弼), 권일제(權一齊), 여운형(呂運亨), 김성주(金性洙) 등이 포함되며, 일제 궁성의 이중교(二重橋) 폭탄 사건의 주역 김지섭(金趾燮) 열사는 정통 우현서루 출신이라고 밝혔다. <대륜 80년사>(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105)와 최재목(2008, 295-296)도 우현서루에는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을 포함해 150여 명의 우국지사들이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일우의 손자 이충희(이상화 둘째 아들)도 우현서루와 인연을 맺은 인물로 장지연, 박은식, 이동휘, 김지섭 열사 등을 언급하였다.<sup>22)</sup>

당시 사숙이자 도서관으로써 우현서루의 규모 수준을 보면, 전국의 애국계몽 지사들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뚜렷한 근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해 이상규(2021, 71-74)는 이러한 인물들의 방문과 이용을 실증할 근거는 거의 없고, 장지연과 김지섭 등 일부 인물을 제외하면 다소 부풀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해조신문> 주필을 맡으면서 우현서루 관련 기사를 2회 보도한 장지연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이일우 가문에 관심이 있었고 장지연이 이일우의 아들 이상악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 통이 발굴되는 등 집안 간에 연계가 있었지만, 1904-1910년에 박은식은 당시 상해 망명생활을, 이동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산계열 항일 운동을 하였기에 우현서루에 기속하며 학업을 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들이 우현서루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검증한 바, 장지연의 경우, 우현서루(시무학당) 설립 직후로 보이는 1905년 3월 20일 이동진의 사망시에 이일우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고, 이일우는 다시 장지연에게 답례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3)</sup> 또한 1906년 장지연 등의 주도로 대한자강회가 설립될 당시, 대구 사무실은 우현서루였다. 반면, 장지필의 경우, 1898년생으로 우현서루가 운영되

던 시기에 그의 나이가 6-13세 정도였기에 그가 우현서루를 방문, 이용했다는 것은 이상규의 주장처럼 관련자료 없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박은식(1859-1925)은 1898년에 황성신문에서 장지연과 주필로 일하였고, 1906년 장지연 등이 대한자강회를 창립하자 기관지 <대한자강회월보>의 논설 집필을 담당하다가 1911년 4월 박은식은 만주로 망명하였다.<sup>24)</sup> 박은식이 담당하던 시기인 1906년 10월 25일에 발행된 <대한자강회월보 제4호>에 우현서루를 방문한 간부의 이야기가 수록되었기에 박은식도 우현서루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였을 것이고, 우현서루가 존재하던 기간 중에 장지연과 대한자강회를 고리로 이일우나 우현서루를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 3.6 도서관 활동

관련 자료들을 통해 우현서루의 도서관 활동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단편적인 언급 이외에 도서관 활동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용규정과 같은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부득이 당시 신문기사와 <성남세고> 등에 언급된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우현서루는

21) 잃어버린 대구명소2, 우현서루. (1969-05-18). 매일신문.  
 22) 문인의 遺産, 가족 이야기 <9> 시인 李相和의 후손들, 월간조선 2015년 8월호,  
 출처: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508100053>  
 23) 하나는 1905년 4월 18일 장지연이 이일우에게 보낸 편지로, 이일우 부친의 부고에 대한 위문내용이 포함되어 있고(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 번호 수증23283,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서 검색), 다른 하나는 편지봉투인데, 이일우가 장지연의 위문에 감사의 의미(大邱 達洞 李一雨 謝狀 上)로 보낸 편지를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 번호 수증23287,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서 검색).  
 24) 우리역사넷 [발행일불명].  
 출처: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1300&code=kc\\_age\\_4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1300&code=kc_age_40)

장서의 열람, 강연과 학술 토론, 기타 활동 등의 도서관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우현서루는 1만권까지 보유한 장서량과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장서의 수준을 기반으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구와 영남은 물론, 당시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장서량과 개화기 지식인의 요구와 관심에 적합한 신학문 관련 국내외 자료들이 풍부하였기에 자료의 열람은 우현서루의 제일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들에는 우현서루의 도서 열람에 대해 서적과 신문 잡지를 매일 읽고 토론할 계획이라거나(황성신문, 1905-02-01; 황성신문, 1905-03-04) “일반인민으로 하여금 요금없이 서적을 열람케한다 하니”(해조신문, 1908-03-07), “각종 서적을 수의 열람케 하여”(해조신문, 1908-04-22) 등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우현서루의 강연과 학술토론을 들 수 있다. 우현서루는 초기에 시무학당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는데, 시무학당의 교육은 특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풍부한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장서를 기반으로 열람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권대웅, 2021, 38). 이는 <성남세고>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강학하고 토론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진보하였도다.”(제문, 학계대표 이수기, 김광진), “많은 사람들 사방에서 물러들어 배우고 토론하니 날로 달로 발전하니”(만사, 이수기, 김광진(박지현, 2016, 58)) 등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앞에서 본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매일 또는 가끔씩 토론한다거나(황성신문, 1905-02-01; 황성신문, 1905-03-04), “신구 학문에 고명한 신사를 강사로 청빙하고

...(중략)... 매일 고명한 학술로 강연 토론하며”(해조신문, 1908-04-22) 등으로 보도되었다. 이처럼 우현서루에서 개화기 지식인들은 장서를 열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연과 토론을 매우 활발히 벌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도서관으로써의 우현서루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타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우현서루의 공간을 이용해 회의장 대여, 측량강습소 임대, 신문 판매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황성신문(1907-10-25) 기사에서는 대한농회(大韓農會) 경북지부가 우현서루에서 농업발전과 개량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현서루가 타 단체의 회의실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1908-10-27, 1909-01-19) 기사에서는 전 참판 서상하(徐相夏)가 사립 측량강습소를 개설하였는데, 이일우가 이를 권장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우현서루의 임대를 허락(許借)하였고, 70명의 생도가 수강하였는데 몇 개월 뒤에 우현서루에서 졸업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같은 신문의 다른 기사(1909-03-14)에는 우현서루 내에서 제2회 측량졸업식이 실시되었고 최우등과 우등을 합쳐 49명이 상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처럼 사숙이자 도서관으로써의 우현서루가 운영 중이던 기간에 일부 공간에 7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하는 강습소를 유치한 것을 통해 우현서루의 공간(자료가 있는 서고가 아닌 본관으로 추정)이 꽤 규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현서루는 해조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민족주의 계열 신문사들의 지사로 등록되어 있음을 당시 해당신문들의 자사 광고지면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현서루가 민족주의 신문이 민중 속으로

전파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 3.7 폐쇄 과정

현재 관련 자료들 대부분은 우현서루가 1911년에 폐쇄되었고, 1926년 일본의 상공인에게 강제매각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륜80년사>에는 “한일 합방(1910. 8. 22)을 치른 일제는 드디어 우현서루의 폐쇄를 강행했다. 이는 민족정기,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술하였다(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104-105). 또한 김필동(1994, 5-6)도 우현서루는 1911년 8월 일제가 조선인을 제국 신민(臣民)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선교육령’<sup>26)</sup>을 반포하여 애국계몽운동을 금지시키자 이일우가 우현서루를 강의원(講義院)이라는 고급 서당으로 개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최미화는 “일제 혹은 일제에 빌붙은 사람들에 의해 덮을 놓은 것인지도 모를 사소한 다툼을 빌미로 1911년 일제 강압에 의해 우현서루는 강제 폐쇄당하고 강의원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소남 이일우 기념사업회, 2017, 121). 최재목 외(2009, 216)도 1905년에 설립되어 1911년까지

7년간 운영되었다고 언급하였고, 이상규도 우현서루와 시무학당이 1911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폐쇄 되었고 그 후 강의원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소남 이일우 기념사업회, 2017, 73). 2017년 소남이일우기념사업회는 이일우 고택에 소장된 1,500 여점의 근현대 문서들을 발굴하면서 일제에 의해 ‘우현서루’가 매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히면서 1911년 달성친목회 사건으로 강제 폐쇄된 후 1926년 일본의 상공인에게 강제매각 되었다고 밝혔다.<sup>27)</sup>

이처럼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 일제가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 이후 민족정신 또는 애국계몽활동을 억누르기 위해 1911년에 사소한 다툼 또는 이장가의 항일운동 참여를 구실로 1904-1905년 초부터 7년 내외로 운영된 우현서루를 폐쇄하고 이후 강제 매각한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우현서루 폐쇄시기와 강제매각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어 추가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이일우의 조카 이상정의 제문에서 백

25) 대한매일신보(1910-08-28)에는 이전부터 ‘大韓每日申報各處支社廣告’를 통해 전국의 신문지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대구 서문밖 우현서루 것 리정유’(과거 大邱西小門外友誼書樓 李正由) 등과 같이 우현서루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의 판매지국 광고는 1910년 8월 28일자까지 게재되었는데, 이 신문은 1910년 5월 21일 통감부에 매수된 뒤부터 통감부의 기관지가 되었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每日申報)>로 전환되었다.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1933>

27) 1926년 ‘우현서루’의 강제 매각 주장의 근거로 ‘대구부 팔운정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근저당 포기 증서’, ‘매도 증서’ 등이 제시되었다. 관련기사는 “경북대 이상규 교수는 “계몽을 통한 독립운동의 근거지이자 그토록 아끼던 우현서루를 자발적으로 매각했을 이유가 없다. 이장가가 가진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매각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1925년 이상화 시인 및 이상정 장군의 반일 활동 강화에 따른 강제 매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우현서루 일제 강제매각 증거 나왔다...이일우 고택서 古문서 발굴. (2017-02-28). 영남일보, 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70228.010020716300001>). 하지만,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을 운영하는 이일우의 후손은 해당 자료의 정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관계자와의 전화통화, 2023-01-17).

부 이일우가 우현서루를 10여년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난한 선비들을 학자로 배출하다가 갑자기 금지 명령을 받아 증도에 폐지되었다고 언급한 점이다.<sup>28)</sup> 여기에서 이상정이 우현서루의 구체적인 폐쇄일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1904-1905년 3월 사이에 우현서루(시무학당)가 설립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로부터 10여년 이후에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1915~1916년 이후에 폐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의 1911년 폐쇄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이상정이 우현서루가 1911년 강의로원으로 변모하여 운영된 시기까지 포함해 표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이일우와 막역했던 최중환이 <성남세고>의 <소남유고>에 수록된 제문에서 “이렇게 십년을 행하여 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으니 비록 크게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심지를 바꾸지 않았도다.”(이동진, 이일우, 2016, 202-203)라고 표현한 점이다. 이는 앞의 이상정의 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현서루가 설립 후 10년을 경과했다면 1914-1915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상정의 경우와 같이 최중환이 1911년 우현서루 폐쇄 후 강의로원으로 운영되던 시기까지 포함해 표현했을 수도 있다.

셋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박물자료 중 이일우, 홍주일(洪宙一), 우용택(禹龍澤) 등 우현서루에서 함께 수학했던 동료들이 결성한 학계(學契)<sup>29)</sup>의 1914년 학계통신(學契通信)<sup>30)</sup>에는 학계(學契) 회의결과를 공지하면서 “四月一日 下午二時에 學契會를 大邱 友賢書樓에서 開하니”라고 기술되었고, 1916년 학계의 신년총회 회의록<sup>31)</sup>에는 “四月一日에 大邱 友賢書樓에서 開?하고”라는 언급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우현서루의 핵심 인물들의 모임인 학계에서는 우현서루 폐쇄시점으로 인식되는 1911년보다 5년이 지난 1916년에도 우현서루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박용찬(2014, 407)은 1929년 중국에서 출간된 도서가 우현서루 장서인이 찍힌 상태로 이후 기증된 점을 지적하며, 우현서루 폐쇄 이후에도 이일우의 후손들이 장서에 여전히 우현서루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네 부분을 보면, 우현서루가 1911년에 강제 폐쇄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우현서루라는 명칭은 1911년에 강제 폐쇄되었다라든 학계 구성원이나 이일우의 후손 등에 의해 계속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21년 9월 21일 개교한 교남학원의 설립 준비를 위해 전(前) 우현서루를 빌

28) 관련 내용은 “府君克繼先志財力不逮耿耿營之十餘春秋 無數寒士賴以成學 忽受禁令中島廢止”이다.

29) 박지현(2016, 58-59)에 따르면, 학계(學契)는 우현서루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이 이일우의 설립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성남세고>에 수록된 “학계대표(學契代表) 이수기(李壽麒), 김광진(金光鎭)”의 제문에는 “동지들이 계를 만들어 다정하게 손잡고 서성이면서 서로 서로 그르침이 없으니 공의 은총에 조금 보답하였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동진, 이일우, 2016, 196-197).

30) 여기에는 19인이 참석하였고, 작년도(1913)년에 의정(議定)한 규칙을 통과한다는 내용 등이 기술되어 학계(學契)는 1913년에 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 번호 구입8216,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서 검색, 출처: <https://www.emuseum.go.kr>).

31) 여기에는 20인이 참석했다고 기록되었으며, 우측 상단에 이일우, 홍주일, 박승조 등 11명의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 번호 구입8962,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서 검색).

렸다(借)는 동아일보 기사(1921-08-31)와 대구 일신학원이 1931년 봄에 전신인 영신학원에서 분리된 후 “리일우(李一雨)씨의 소유인 팔운정 우현서루 집을 빌어 사백 아동이 역개를 부디어가며 퇴창과벽에서 떠는 귀막히는 정경”이라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1931-12-18)를 보면 우현서루라는 명칭은 우현서루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신문기사 등에서도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 기사를 통해 일신학원이 우현서루 건물을 임대했던 1931년말까지는 우현서루가 이일우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의 1926년 일본 상공인에게로 “강제매각”되었다는 주장과는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관련 자료들의 부족으로 우현서루의 폐쇄일시와 강제매각 여부와 그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고 상충되므로 최근에 발견된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정리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sup>32)</sup>

이상을 바탕으로 우현서루의 폐쇄과정을 정리하면, 기존의 1911년 강제 폐쇄와 1915년 강의원 폐쇄 주장은 가능성은 높으나 그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고, 1921년 8월까지 공백기와 수리과정을 거쳐 1921년 9월 ~ 1924년 5월에 교남학원으로 임대된 후<sup>33)</sup> 다시 공백기를 거쳐 1931년 봄부터 일신학원에 임대된 후 일신학원이 이전<sup>34)</sup>한 1932년 12월 이후 다시 공백기를 맞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후 일정 시점에 매

각 또는 처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8 폐쇄 후 장서의 이동

1911년 우현서루의 폐쇄 이후에 우현서루의 장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우현서루 내 장서들은 1911년 폐쇄 이후, 또는 1915년 강의원 폐쇄 이후, 적어도 개교 초부터 수백 명의 학생이 운집했던 교남학원(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107)이 우현서루의 건물들을 가교사로 사용해 수업을 했던 1921년 9월 이전에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현서루 폐쇄 이후 장서들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관련 자료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우현서루 폐쇄 이후 우선 이일우의 가옥이 우현서루의 장서 보관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란기(2016, 249-254)는 대구 중구 서성로 1가에 위치한 이일우 가옥은 1919년 한옥(목구조, 안채 등)과 1935년 일식(콘크리트 구조, 사랑채)으로 지어진 근대주택으로, 대지면적은 296평,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모두 314.45㎡이며, 4개의 동과 술도가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란기는 그 중 5칸×1칸 규모에 면적은 약 36㎡이며, 목구조인 창고채는 이일우의 수입서적 혹은 발간

32) 그리고 일제의 강압적 폐쇄에 대한 근거도 관련자료 확보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일우의 친일 행적을 지적하는 측에서는 1904년 설립된 우현서루는 1911년 폐쇄되지만 어느 자료에도 강제 폐쇄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구시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 이일우 고택 기부채납 위법행위 고발. (2021-10-26). 국민뉴스, 출처: <http://www.kookminnews.com/43968>

33) 1924년 5월에 교남학원은 대구교남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교사를 대구 남산동 657번지로 이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4326>

34) 일신학원(一新學院)은 1932년 12월에 남명보교(南明普校)로 변경되며, 대구 비산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동아일보, 1932-08-25).

서적을 보관하는 용도로 건립되었고, 집주인(이일우) 사망 이후에는 각종 옛 가구, 각종서류, 서간 등이 수장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5칸으로 구성된 고방채는 2칸은 주거용, 1칸은 사랑채와 연결부 및 창고로 사용되었고, 2칸은 창고인데, 서적 보관용 서고(2단, 후에 부착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옥 중 창고채와 고방채 중 일부에는 1919년 이후에 이일우가 우현서루의 장서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우현서루의 장서는 1911년 폐쇄 이후부터 기존 건물에 유지되어 있다가 가옥이 건립된 1919년부터 교남학원의 우현서루 입주에 이루어진 1921년 9월 사이에 당시 우현서루의 장서가 이일우 가옥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5)</sup> 그리고 사실여부와 시기의 특징은 아직 어렵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일우가 우현서루 폐쇄 이후에 서포를 운영했다면, 우현서루의 장서 중 일부는 서포 내에 있다가 외부로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 번째 경로는 이일우 가옥에서 대구 산격동 보존서고 장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세고> 중 <소남유사> 내 여러 편의 글에서 1935-1936년에 이일우는 우현서루의 장서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려고 우현서루와 떨어진 현재 대구 북구 산격동 인근에 서고 용도의 건축물을 사서 장각(藏閣)의 건립을 시도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이일우와 30년 지기인 최종한은 제문에서 1935년 정월에 이일우가 자신에게 “지금 소장한 서적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 소유하면 옛날 한(漢)나라의 서적처럼 벽이나 길에 버려질 것이네. 서적을 갈무리하는 집(장각)을 사서 모으려고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으면서 관련 일의 추진을 맡겼다고 한다. 최종한은 산격동의 가옥을 매입하고, 담장을 꾸미는 일을 하던 중 이일우가 사망(1936년 8월 15일)하였다고 기술하였다(이동진, 이일우, 2016, 202-203). 이는 이일우의 아들 이상악이 쓴 유사와 우현서루 학계의 구성원 박승조가 쓴 행장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일우는 동방의 옛 서적들이 버려질 우려가 크니 이 장서들을 보관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보존서고용 장각을 만들어 열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바로 제공하고, 볼 사람이 없어도 잘 보관하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정화(精華)가 실추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이동진, 이일우, 2016, 246: 214). 송준필이 쓴 묘갈명에는 보존서고를 건립하는 일은 이일우의 사후에 그의 아들이 완성하였다고 기록되었다(이동진, 이일우, 2016, 222-225). 그렇다면 우현서루의 장서들은 1919년 이후 이일우 가옥에서 보관되다가<sup>36)</sup> 1936년 이후, 즉, 이일우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이 완성한 대구 산격동 내 보존서고용 장각으로 다시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에서 이일우 가옥에서 장서를 보관하던 창고채 용도가 이일우 사망 후 각종 옛 가구, 각종서류, 서간 등을 수장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장각의 건립 이후 장서들이 해당공간으로 이동하여 보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

35) 이일우 가옥 내 장서 수장 공간의 크기를 고려할 때 당시 수천~1만권 규모를 모두 수장하기를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일우 가옥으로 이전된 장서는 우현서루 장서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36) 물론, 이일우가 서포를 운영했다면 일부 장서는 서포 내에 보관되었다가 외부로 판매되었을 것이다.

히 알려진 바가 없다.

우현서루 장서의 최종 경로를 살펴보면, 일부는 압수 또는 분실되었고 이일우 후손이 구입한 자료들은 대학도서관에 기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박창암은 우현서루의 많은 귀중도서들은 일제에 압수당했고, 나머지 부스러기들이 경북대에 이일우의 장손 이석희 명의로 기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상백이상백평진 출판위원회, 1996, 48-49). 다른 자료에 의하면, 우현서루 장서 중 한글서적들은 일제가 강탈해 갔거나 유실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이천동의 고서점에 있었는데 서점주 사망 후로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일부는 경북대 도서관에 기증되었고 전한다(사단법인 거리문화연대, 2007, 217). 현재 일제에 의한 장서 압수나 다른 장서 유실 과정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나 경북대 도서관에 기증된 우현서루의 장서는 이일우가 운영하다가 1911년 폐쇄된 우현서루의 장서가 아니고 중화민국 18년(1929) 상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영인한 중국의 역대 경사자집의 서적을 모은 〈사부총간(四部叢刊)〉으로, 우현서루의 재건을 소망한 이일우의 장남 이상악이 육당 최남선을 통해 중국에서 사들인 것을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이석희가 3,937권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된다(박용찬, 2014a, 405-406; 매일신문, 1969-05-18; 영남일보, 2005-10-20). 한편, 박용찬은 2014년경 1911년 폐쇄 당시의 우현서루의 장서인이 찍힌 4권의 책들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의 장서인이 우현서루의 1910년대 이전 한적(漢籍)에 찍힌 것과 거의 유사하며, 이 책들의 발간 연대, 장소, 내용이 과거 우현서루 설립 이전에 중국에서 발간된 신학문책이라 우현서루 장서의 성격

과 동일하므로 해당 서적들은 우현서루의 장서라고 주장하였다(박용찬, 2014a, 405-413). 이 글에서 박용찬은 “그런데 최근 필자는 우현서루의 장서인이 선명히 찍힌 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계진화사(世界進化史)와 세계근세사(世界近世史), 태서신사(泰西新史), 중일약사합편(中日略史合編) 등이 그것이다.”라고만 언급하고 소장처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를 통해 이 책들이 도서관 등에 소장된 것이 아니라 우현서루 폐쇄 이후 산실된 장서를 개인이 획득하여 소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04년에서 1905년 초 사이 금남이동진의 의지와 사재출연을 토대로 그의 장남인 소남 이일우에 의해 대구에서 설립, 운영되었다가 1911년 일제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사숙이자 도서관인 우현서루(友弦書樓)의 도서관적 성격을 1) 설립 주체와 설립 목적 2) 설립 일자 3) 위치와 건물 4) 장서 구성과 확보 방법 5) 이용대상과 주요 이용객 6) 도서관 활동 7) 폐쇄 과정 8) 폐쇄 후 장서의 이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우현서루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DB와 인터넷에 대한 검색과 인용문헌 확장검색을 통해 도서, 당시의 신문과 잡지기사, 논문, 기록물, 이동진·이일우 부자와 그의 후손과 지인이 쓴 글을 담은 〈성남세고〉 등을 찾아내어 분석하였다.

우현서루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가로 발견한 자료들을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 주체와 설립 목적과 관련해 우현서루는 서세동점의 시기에 동서고금의 서적들을 기반으로 시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지식인의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둘째, 우현서루 설립일자와 관련해 시무학당은 우현서루의 전신 또는 동일체이며, 명칭은 1905년에는 시무학당으로, 1906년부터는 우현서루로 사용하였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고, 관련 자료를 종합해 우현서루는 1904~1905년 3월경 사이에 설립준비와 설립허가를 마치고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와 자료에서 이동진 또는 이동진 일가가 을사조약에 분노하여 우현서루를 설립(또는 사재 출연) 또는 설립 승낙을 했다는 주장은 오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우현서루의 위치는 대구시 중구 수창동 101-11번지이며, 양철지붕 목조 건축물 4동(木造鑿家四棟)으로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1911년 조선총독부 지적원도와 1917년 대구지도 초판을 비교하여 우현서루가 4개 동의 건축물과 작은 오두막으로 구성된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우현서루의 장서는 설립 초기에 수백 권 규모에서 그 후 수천 ~ 1만권 정도까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장서 확보를 위해 우현서루가 대구의 서포(書舖)와 출판사 등 도서유통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일우가 직접 서포를 운영하여 장서 입수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당시의 방문자와 이용자의 글들을 통해 우현서루의 이용대상은 일반 시민보다는 지식인, 선비, 우국지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로 인해 우현서루는 공공도서관

이나 학교도서관 성격보다 연구 또는 학술도서관 성격이 더 강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장지연과 박은식 등 일부 애국지사의 방문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우현서루의 도서관 활동은 장서의 열람, 강연과 학술 토론 등이 대부분이며, 우현서루의 공간을 이용해 회의장 대여, 측량강습소 임대, 신문 판매 등의 활동도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일곱째, 우현서루 폐쇄시기와 강제매각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여 폐쇄시기로 지목된 1911년 이후에도 이일우의 지인과 후손들이 우현서루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밝혔고, 일신학원이 우현서루 건물을 임대했던 1931년 말까지 우현서루가 이일우의 소유라고 밝혀진 신문기사를 제시하여 기존의 1926년 일본 상공인에게 강제매각 되었다는 주장이 보완되어야 함을 밝혔다. 끝으로, 우현서루 폐쇄 후 장서들은 이일우의 가옥과 산격동의 보존서고용 장가를 거쳐 일부는 압수, 분실되었고, 우현서루 폐쇄와 이일우 사후에 구입된 자료들은 경북대에 기증된 것으로 경로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현서루에 대한 문헌정보학(도서관사)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도서관사 관련 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우현서루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며, 우현서루보다 1-2년 정도 늦게 설립된 도서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도서관사 저서들은 국내 근대 도서관 설립과정에 관한 부분에서 1906년 평양에서 유지들이 대동서관이라는 사립서관(출판사, 서점을 겸함)을 설치한 것과 1906년에 이범구, 윤치호 등의 유지들의 대한도서관 설립 주도 등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의 사립 공공도서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도서관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필모, 오동근, 1991, 233-234; 김세익, 1992, 214-221; 윤희윤, 2019, 249-251; 송승섭, 2019, 210-224) 안타깝게도 이들보다 앞서 1904-1905년 3월 사이에 설립된 사립 도서관인 우현서루는 언급되지 않았다. 앞으로 국내 도서관사의 일부로 우현서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현서루의 도서관 활동과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현서루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현서루(시무학당)와 이일우 등에 관한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실제 연구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우현서

루의 설립, 폐쇄, 강제 매각 등의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우현서루의 장서규모와 주제, 세부적인 도서관 기능, 우현서루의 도서관종 성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최근 우현서루와 이일우 가문에 관련된 자료들이 현재 정리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정리, 공개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지점이다. 향후 우현서루의 도서관 활동과 도서관 성격의 규정, 설립과 폐쇄, 매각 등의 과정에 대해 관련된 중요자료들이 조속히 공개된다면 우현서루가 국내의 대표적인 근대 사립 도서관이라는 지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권대웅 (1994). 韓末 慶北地方의 私立學校와 그 性格. 國史館論叢, 58, 21-48.
- 권대웅 (2021). 근대 대구의 애국계몽운동. 서울: 선인.
- 김란기 (2016). 대구시 서성로 소남 이일우 가옥의 건축적 특징과 인문학적 가치. 2016년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49-254.
- 김봉희 (1999).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세익 (1992). 도서·인쇄·도서관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 김영석, 이용재 (2018).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31-150.
- 김일수 (2018). 한말·일제강점기 윤필오·윤홍열·윤우열 삼부자의 사회활동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71, 289-327.
- 김필동 (1994). 이상백의 생애와 사회학 사상. 한국사회학, 28(2), 1-34.
- 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2001). 대륜 80년사. 대구: 대륜중고등학교, 대륜동창회.
- 박영호 (2017). 小南 李一雨의 삶과 한시 세계. 동방한문학, 73, 301-330.
- 박용찬 (2014a). 근대계몽기 대구의 문학장 형성과 우현서루. 국어교육연구, 56, 397-420.

- 박용찬 (2014b). 이상화 가(家)의 서간들과 동경(東京). *어문론총*, 62, 463-486.
- 박지현 (2016). 한말 식민지기 유교 지식인 海岳 金光鎭의 도시 이주와 의생 활동 그리고 지적 전환.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사학과.
- 백기만 (1957). 씨뿌린 사람들-慶北作家文藝家評傳. 서울: 사조사.
- 사단법인 거리문화연대 (2007). 대구신택리지. 대구: 북랜드. 재인용: 박용찬 (2014a). 근대계몽기 대구의 문학장 형성과 우현서루. *국어교육연구*, 56, 406.
- 상백이상백평전 출판위원회 (1996). 상백이상백평전. 서울: 을유문화사.
-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회 편 (2017). 소남 이일우와 우현서루. 서울: 경진출판.
- 송승섭 (2019). 한국 도서관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송승섭 (2020). 日帝 强占期 京城圖書館의 變遷 過程에 관한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71-90.
- 송승섭 (2022). 개화기 한국 근대 도서관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구보학회*, 32, 11-68.
- 윤효정 (1906). 本會會報. *대한자강회월보*, 4, 40-48.
- 윤희윤 (2019). 도서관 지식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 이동진, 이일우 (2016). 성남세고. 박영호 역주. 서울: 경진출판.
- 이상규 (2021). 두발을 못 뺀 이 땅이 애달파. 서울: 경진출판.
- 이중희 (2019). 대구미술이 한국미술이다. 대구: 동아문화사.
- 정필모, 오동근 (1991). 도서관문화사. 서울: 구미무역 출판부.
- 조용완 (2022).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119-150.
- 조용완, 김종성 (2020).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4), 145-168.
- 최재목 (2008). 海岳 金光鎭의 陽明學에 대한 예비적 고찰: '韓國近代陽明學'의 영남지역 전개에 대한 새로운 發掘. *한국사상사학*, 30, 285-313.
- 최재목, 정다운, 김찬우, 광재관 (2009). 일제강점기 신지식의 요람 대구 『友弦書樓』에 대하여. *동북아 문화연구*, 19, 211-2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ik, Ki-Man (1957). *People Who Have Sown The Seeds*.

Cho, Yong-Wan & Kim, Jong-Sung (2020).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building of Daegu city libr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4), 145-168.

- Cho, Yong-Wan (2022). A study about the deposit stations in Japanese colonial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119-150.
- Choi, Jae-Mok (2008). A study on Haeak(海岳) Kim Gwangjin(金光鎭) Yangmyonghak(陽明學). *The Society for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s*, 30, 285-313.
- Choi, Jae-Mok et al. (2009). 'Uhyeonseoru(『友弦書樓』)' of Daegu in the colonial period of the imperial Jap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19, 211-225.
- Dae Ryun Middle/High School, Dae Ryun Alumni Association (2001). *Dae Ryun 80 Year History*. Daegu: Dae Ryun Middle/High School, Dae Ryun Alumni Association.
- Jung, Pil-Mo & Oh, Dong-Geun (1991). *Cultural History of Libraries*. Seoul: Gu Mi Trading Press.
- Kim, Bong-Hee (1999). *Study on the Book Cultur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Il-Su (2018). Their involvement in social movement and its significance - relating to Yun Pilo, Yun Hongryeol, Yun Wooryul during the last period of Korean empir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Ruling Era. *Han Kook Hak Non Jip*, 71, 289-327.
- Kim, Pil-dong (1994). The life of Lee, Sang Hwa and his thought of sociolog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8(2), 1-34.
- Kim, Ransky (2016). The achitectoral characters and humanistic value of Sonam Lee-Ilwoo house in Deagu Seosung-ro. *Proceedings of the 2016 Autumn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for Architectural History*, 249-254.
- Kim, Se-Ik (1992). *Book, Press and Library History*. Seoul: Asia Culture.
- Kim, Young-Seok & Lee, Yong-Jae (2018). A study on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Japanese Hongdoho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31-150.
- Kwon, Dae-Woong (1994). Private schools and their characters in Kyung Book during the last period of the great Korean empire. *Kuk Sa Kwan Non Chong(國史館論叢)*, 58, 21-48.
- Kwon, Dae-Woong (2021).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of Daegu in Modern Period*. Seoul: Sun In.
- Lee, Dong-Jin, & Lee, Il-Woo (2016). *Sung Nam Se Go(城南世稿)*. Seoul: Gyung Jin Press.
- Lee, Jung-Hee (2019). *Daegu Art is Korea Art*. Daegu: Dong A Mun Hwa Sa.
- Park, Ji-Hyun (2016). *The Migration, Uisaeng(醫生) Activities and Intellectual Turn of Confucian Intellectual Hae-ak(海岳) Kim Kwang-Jin(金光鎭) from the Late Period of Chosŏn to Japanese Colonial Era*.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History, Dong A University.

- Park, Yong-Chan (2014a). The formation of literature field in Daegu and Woo-Hyun Seoru during the age of modern enlightenment.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56, 397-420.
- Park, Yong-Chan (2014b). The letters of 'Lee, Sang-hwa's family circle and Tokyo. *Eo-Mun-Lon-Chong*, 62, 463-486.
- Park, Young-Ho (2017). The life and the classical Chinese poetry world of Sonam(小南) Lee Il-woo(李一雨). *Dongbang Korean Classics*, 73, 301-330.
- Sang-Baik Sang-Baik Lee Critical Biography Publishing Committee (1996). *Sang-Baik Sang-Baik Lee Critical Biography*. Seoul: Eul Yoo Press.
- So-Nam Il Woo Lee Memorial Committee (2017). *So-Nam Il Woo Lee and Woo-Hyun Seoru(友弦書樓)*. Seoul: Gyung Jin Press.
- Song, Sung-Sub (2020). A study on changing process of the 'Kyungsung Librar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71-90.
- Song, Sung-Sup (2019). *The History of Libraries in Korea*. Seoul: KLA.
- Song, Sung-Sup (2022).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modern librarie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Gubo Hakbo-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32, 11-68.
- Yoon, Hee-Yoon (2019). *Cultural History of Library and Knowledge*. Seoul: East Asia.
- Yoon, Hyo-Jung (1906). *Bon Hoi Hoi Bo(本會會報)*. *Dae Han Ja Gang Hoi Monthly Report*, 4, 40-48.